

News

속전속결 임대차 3법...전월세 시장 개혁하되 부작용 최소화

뉴스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법안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임대차 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을 때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2년간 연 20%가량씩 전세가 폭등

美 연준 "경제회복 기대 못미쳐"...제로금리 당분간 유지

매일경제

연준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 파월 연준 의장, "급격한 경기하강 이후에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회복이 일부 됐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경제의 앞에 놓인 길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

은행 내달 위험업종 대출 줄인다... '코로나 부실' 차단

올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해 전방위로 금융 지원에 나섰던 은행들이 차주 `옥석 가리기` 작업에 착수...8월 이후에는 위험 업종에 대한 은행 대출심사 강화 기업은행은 기업 차주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국내 6대 은행은 지난 2분기에만 코로나19 관련 미래 전망을 반영한 신용손실 충당금으로 총 9,774억원을 적립

미 연준, 한국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 6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 또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를 위한 임시적 기구(FIMA)의 활동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삼성생명법' 힘 실은 은성수 "시가로 위험성 계산해야"

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특정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총 자산의 10% 이상(시장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쳐... "(보유 지분 가치)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FRS17도 시가로 부채를 계산한다"

코로나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130% 넘어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를 기록...전년 대비 2%p 증가...손실액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 4개 손보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7,159억원...이들 손보사가 전체 실손보험의 약 62%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

가입연령 낮추는 실손보험들, '50세 넘으면 거절'

머니투데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변경...유일하게 가입연령이 70세인 삼성생명도 60세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가입연령을 낮추면서 현재 가입연령이 65~70세인 손보사들도 가입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

사모펀드 책임론에 금융당국 수장들 "송구" "무거운 책임감"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금융사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